

생활 안전 장치 도감

저자
최정수

기획
이슬잎
박민선

안전하게 살 권리의 실현, 생활안전장치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서 안전하기 위한
의지로

글쓴이 최정수

- (사)한국안전디자인협회 회장
-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공간경험디자인학과 교수

우리는 안전에 대한 교육, 홍보, 정책, 시설의 확충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보면,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작고 다양한 위험들을 모두 제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안전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제도들은 보편성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작고 치명적인 위험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생활안전장치’는 바로 일상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창의적인 시도이자 노력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안전불감증 상태에 있지만, 사실 우리의 생활을 둘러싼 것들 모두 위험 요소입니다. 일상의 위험이 사회적 재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이유는 반복되는 일상과 생활환경에 대한 익숙함 때문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작고 다양한 사건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대규모의 위험만을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삶을 위해 생활안전장치를 통해 일상의 위험들을 미리 예방하고자 합니다.

‘생활안전장치’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의 삶의 방식에 맞춰 디자인되었습니다. 개인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일상 속의 여러 위험들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주체적으로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들의 보다 안전한 삶을 위해 단순한 ‘도구’에 디지털 기술을 입혀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생활안전장치는

일반적 도구에 비해 더 복잡하고 기계적이며, 때로는 사회적 제도보다 더 유연하고 단순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의 방식과 필요에 맞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양한 만큼 생활안전장치의 형태와

기능도 다양합니다. 생활 속의 안전은 보편적 위험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개인의 구체적인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직관적이고 주체적인 방식으로 언어됩니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 개인들이 자신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주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생활안전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차별 없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하고,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안전장치의 형태와 기능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담고 있으며, 개인의 일상을 담은 기록입니다.

결론적으로 생활안전장치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직관적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활안전장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제품일 수도 있고 시각화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일상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라면 그 모든 것들이 생활안전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안전장치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형태는 다양해도 방향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다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생활안전장치의 목적입니다.

여는 말	00
I. 안전한 생활	
① 안전 동화 : 영유아 안전장치	00
(1) 콘센트마개	00
(2) 구멍 있는 불펜뚜껑	00
(3) 안전가위	00
(4) 접착제 안전뚜껑	00
(5) 미끄럼방지 양말	00
(6) 손가락 끼임방지기구, 서랍 잠금장치	00
(7) 온수 조절장치	00
(8) 모서리 보호대	00
(9) 투명우산, 야광우의	00
(10) 날개없는 선풍기	00
(11) 안전통조림캔	00
② 홈 세이프티 홈 : 가정 내 안전장치	00
(1) 안전 옷핀	00
(2) 실리콘 주방장갑, 스틸 손가락 보호대	00
(3) 가정용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00
(4) 음성 연기 감지기	00
(5) 자동 가스밸브조절기	00
(6) 미세먼지 마스크	00
(7) 공기질 감지기	00
(8) 곰팡이 제거 조명	00
(9) 비상 연락 장치	00
③ 노인을 위한 안전은 있다 : 노인 안전장치	00
(1) 낙상예방 침대 안전장치, 노인 목욕의자	00
(2) 화장실 낙상예방 안전지시대	00
(3) 높이조절 세면대	00
(4) 안전지팡이	00
(5) 안전체크장치	00

II. 안전한 세상	
① 안전으로 가는 길 : 교통 및 이동 안전장치	00
(1) 계단 눈슬립발판	00
(2) 자전거 방향표시등	00
자전거헬멧	00
자전거야간 신호등	00
(3) 쉽게 설치하는 스노우체인	00
(4) 자동차 안전삼각대	00
(5) 초보운전자를 위한 차선표시기	00
(6) 카시트	00
(7) 휴대폰 사용자를 위한 바닥 주의 사인	00
② 일상의 안전 : 치안 및 재난 안전장치	00
(1) 여성 호신경보기	00
여성 안전귀가 서비스앱	00
호신용 휴대폰 전기충격기	00
(2) 액션캠 내장형 손전등	00
(3) 지진대비 방석헬멧	00
(4) 페이퍼캐스트	00
(5) 라이프클락	00
(6) 사용하기 쉬운 심장제세동기	00
안전정보	안전정보가 필요하신가요? (2020년도 기준)
	00
맺는 말	00

I. 안전한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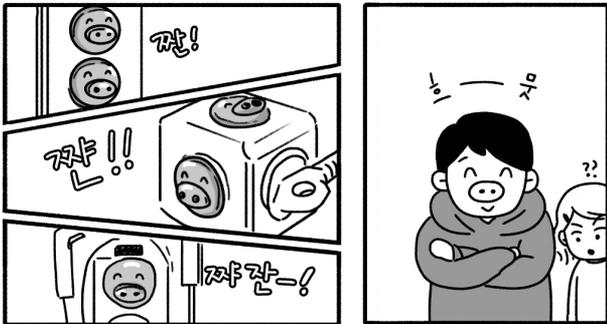
- ① 안전 동화 : 영유아 안전장치
- ② 홈 세이프티 홈 : 가정 내 안전장치
- ③ 노인을 위한 안전은 있다 : 노인 안전장치

① 안전 동화 : 영유아 안전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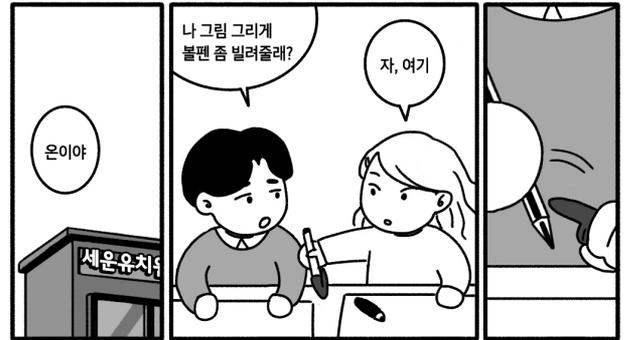
- (1) 콘센트마개
- (2) 구멍 있는 볼펜뚜껑
- (3) 안전가위
- (4) 접착제 안전뚜껑
- (5) 미끄럼방지 양말
- (6) 손가락 끼임방지기구,
서랍 잠금장치
- (7) 온수 조절장치
- (8) 모서리 보호대
- (9) 투명우산,
야광우의
- (10) 날개없는 선풍기
- (11) 안전통조림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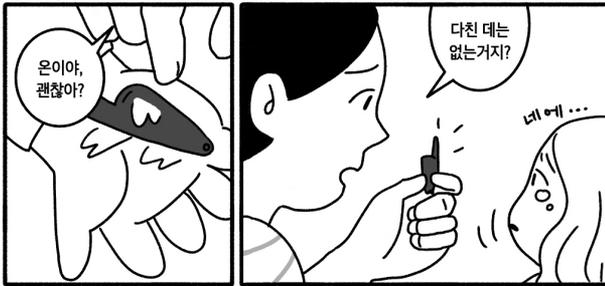
(1) 콘센트 마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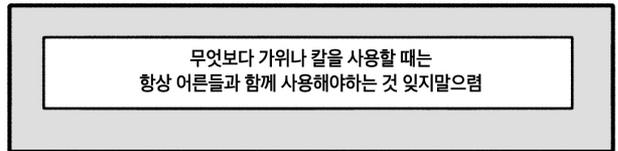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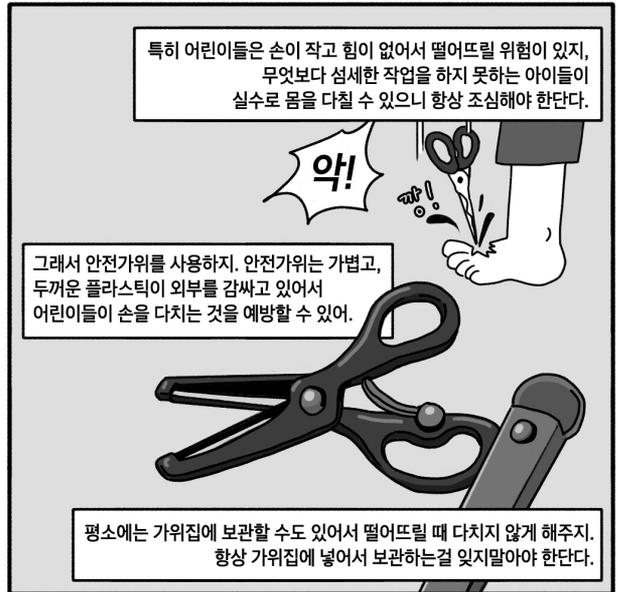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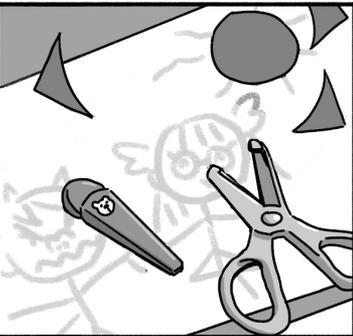
(2) 구멍 있는 볼펜뚜껑





(3) 안전 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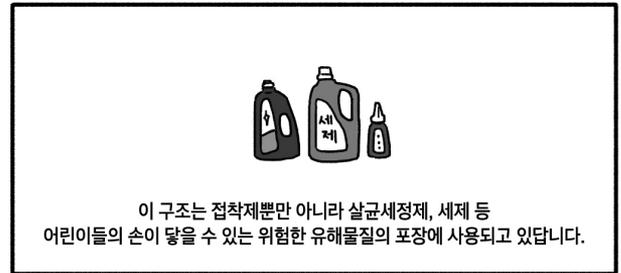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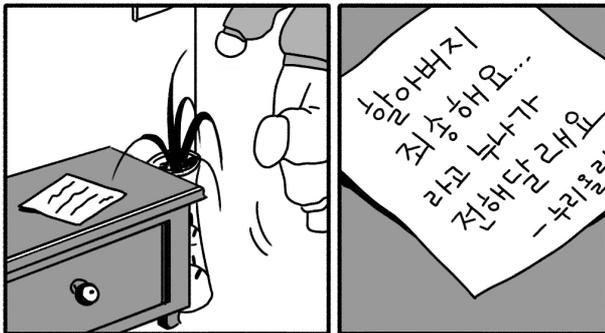


(4) 접착제 안전뚜껑



1시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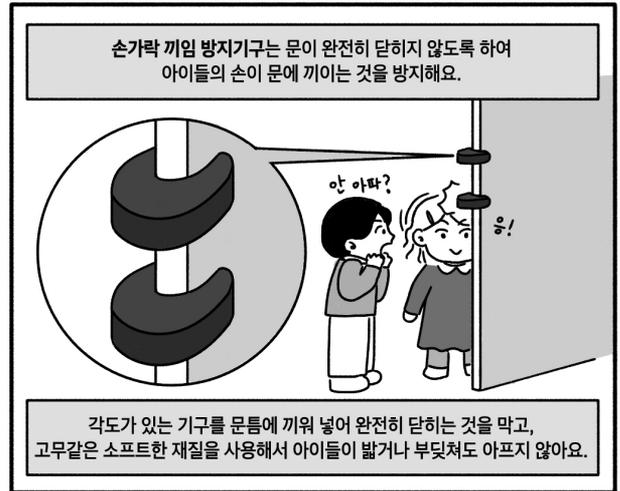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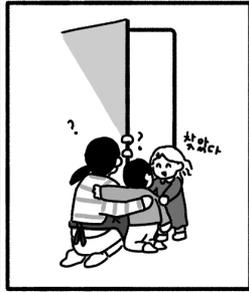
(5) 미끄럼방지 양말





(6) 손가락 끼임방지기구, 서랍 잠금장치





(7) 온수 조절장치



온수조절장치는 뜨거운 물 쪽으로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야. 영유아 어린이들은 온수에 대한 섬세한 조작을 하기 힘들어서 갑자기 나오는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의하면 ‘샤워 설비, 세면 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는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8) 모서리 보호대





[모서리 보호대]

활동력이 좋은 어린이들은 뛰고 놀다가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많아요.
이런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서 가구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죠.
모서리 보호대는 부드럽고 폭신한 재질의 제품을
단단하고 각이 있는 가구의 모서리에 붙여서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재예요.

각도에 맞춰서 모서리 끝만 보호하는 단일 제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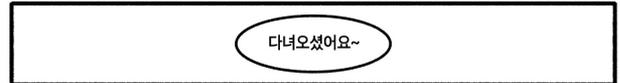
롤 형태로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사용하는 제품 등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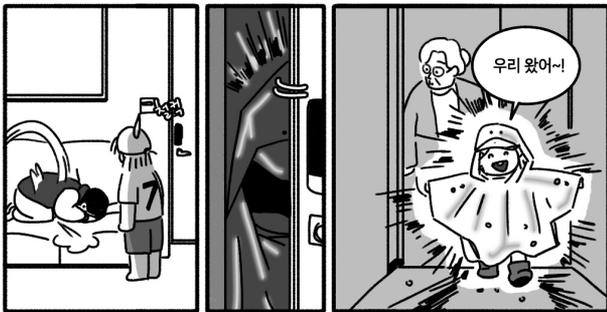
(8) 모서리 보호대 — 부록

세계적인 조립 가구업체인 '이사의' 서랍장이 넘어지면서, 아이가 서랍장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으로 2017년에만 미국 내에서 5명의 아동이 숨졌고, 90여 명이 다쳤다고 하네요. 이 사고는 아이가 서랍에 매달리자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어요. 이렇게 어른들이 쓰는 가구를 아이들이 있는 곳에 두거나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가구는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9) 투명우산, 야광우의





[투명우산, 야광우의]

어린이 투명우산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비 오는 날 걸어가는 어린이가 우산 앞에 있는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투명한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말해요.



최근에는 앞면 투명하고 뒤는 노란색과 같은 밝은색을 적용해서,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지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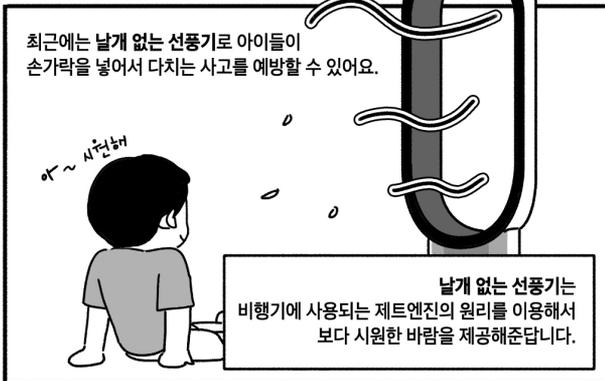
야광 우의는 밤이나 어두운 날에 주행하는 차가 어린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빛을 발광하거나 형광의 밝은 옷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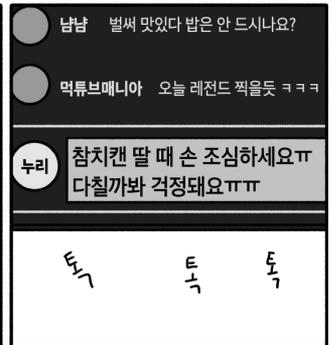
야광 소재는 어린이 우의뿐만이 아니라, 야간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이나 경찰들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능성 의류로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10) 날개없는 선풍기





(11) 안전 통조림 캔





누리님이
손 조심하라고
말씀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먹장님이 내 댓글을 읽어주셨어...!

입
막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준비한
참치캔은~



뚜껑이 부드럽게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몇 심개 몇 백개도
딸 수 있습니다~

스무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
저렇게 하면
안전하게 딸 수 있겠구나!
역시 먹장님 ♥♥♥!!!

(1) 안전 통조림 캔 - 부록

알루미늄으로 된 원터치형 캔뚜껑을 소프트한 재질로 만들어서 손이 베이지 않게 해줘요. 힘을 주다가 미끄러지거나, 손잡이가 떨어지면서 뚜껑에 베이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을 소프트한 재질로 바꿔서 해결했어요. 소프트한 재질로 만들어졌어도,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 날카로울 수 있으니, 캔을 열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해요.



② **홈 세이프티 홈 :** **가정 내** **안전장치**

- (1) 안전 옷핀
- (2) 실리콘 주방장갑,
스틸 손가락 보호대
- (3) 가정용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 (4) 음성 연기 감지기
- (5) 자동 가스밸브조절기
- (6) 미세먼지 마스크
- (7) 공기질 감지기
- (8) 곰팡이 제거 조명
- (9) 비상 연락 장치

(1) 안전 옷핀





(2) 실리콘 주방장갑, 스틸 손가락 보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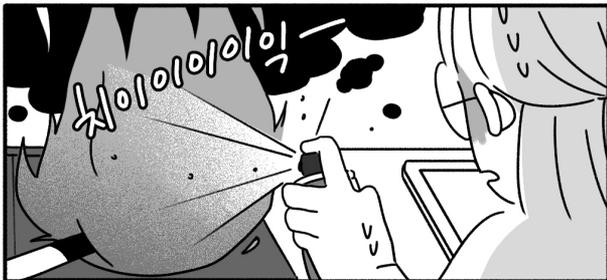
요리는 날카로운 칼과 볼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구가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실리콘 주방장갑은 오븐에서 꺼낸 그릇이나 뜨거운 냄비를 들 때 화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에요. 실리콘을 사용해서 열전도가 낮고, 사용자를 고려해 편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개발되고 있답니다.

스틸 손가락 보호대는 칼을 사용할 때 손가락이 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구예요. 골무처럼 생긴 보호대를 손가락에 끼워서 사용합니다. 초보자뿐만 아니라 능숙한 사람도 부주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3) 가정용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가정용 소화기]

스프레이식 소화기는 분말 대신 강화액을 사용해서
화염을 빠르게 냉각시켜버려요.

스위치를 누르는 방식이라 사용하기도 쉬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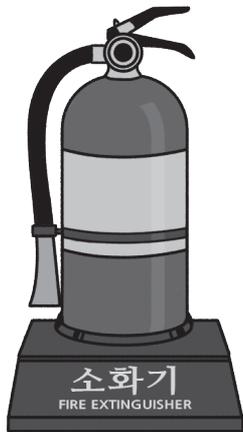
이런 소화기 말고도 화분처럼 사용하다가
불이 났을 때 던지는 투척소화기도 있어요.

투척용 소화기는 언제든지 눈에 띄는 곳에 둘 수 있어서 안심되고,
가벼우며 다른 사용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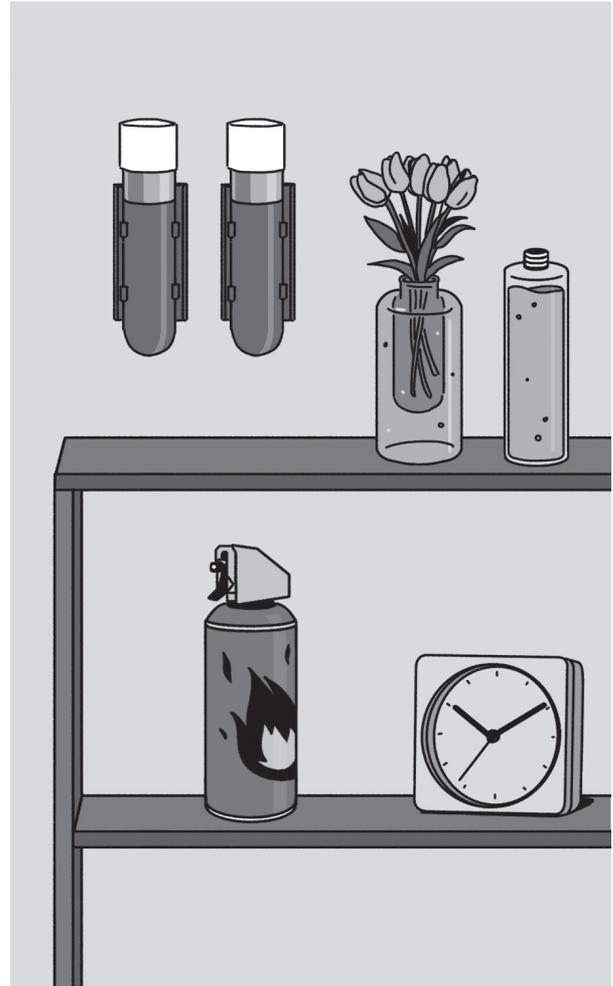


(3) 가정용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 부록

집안에 불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집마다 소화기는 필수예요. 그런데 소화기를 둘 곳도 마땅찮고, 사용법도 어렵죠. 그래서 막상 불이 나면 초기진화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정용 소화기가 개발되고 있어요.



(3) 가정용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 부록



(4) 음성 연기 감지기



(4) 음성 연기 감지기 — 부록



[음성 연기 감지기]
 불 때문에 연기가 나면 이 장치에서 불빛과 소리가 날 거야. 이걸 연기 감지 센서를 탑재한 '음성 연기 감지기'란다

화재가 나면 우선 피난 경로로 탈출해야 해.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구난 용품을 찾아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데, 그때 필요한 소화기나 비상 망치 같은 구난 용품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이기도 하지.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는 잘 보이도록 밝은 빛이 나오고, 음성으로 어떤 용품이 어디에 있는 알려줘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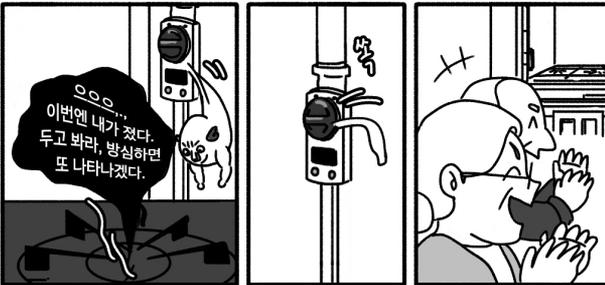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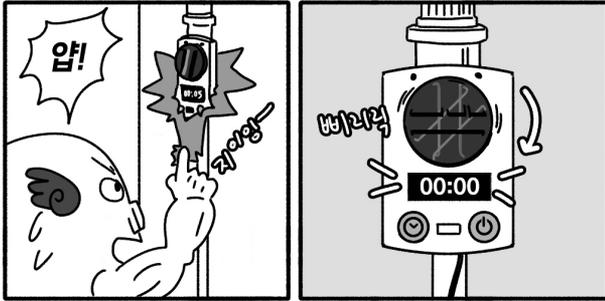


화재가 났을 때는 연기로 인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당황해서 구난 용품의 위치를 찾지 못해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안전 경보 음성장치'는 소화기나 망치 같은 구난 용품이 있는 곳에 부착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음성과 불빛으로 위치를 알려준답니다. 이 장치는 연기감지센서를 사용해서 작동해요. 가정에서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안전장치의 위치를 음성으로 알려주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답니다. 또한, 고시원이나 여관처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머무는 곳에 설치해두면 더욱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5) 자동 가스밸브 조절기





[자동 가스밸브조절기]

건강증으로 가스밸브 잠그는 것을 깜빡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된 장치입니다. 가스 불을 끄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밸브가 잠긴답니다.

이거 시간설정중...

시간 설정

30분로 해요

열림/닫힘

타이머로 시간을 설정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밸브가 잠기기도 해요.

어디보자... 가스 누출 없고요, 지진 없고요, 화재 위험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가스 누출확인이나 지진 감지, 화재 감지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요.

(6) 미세먼지 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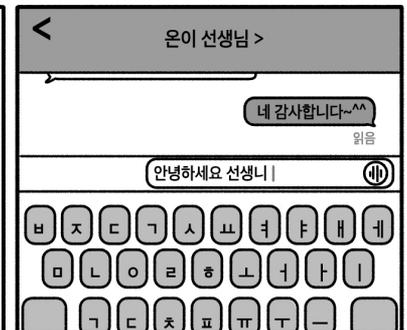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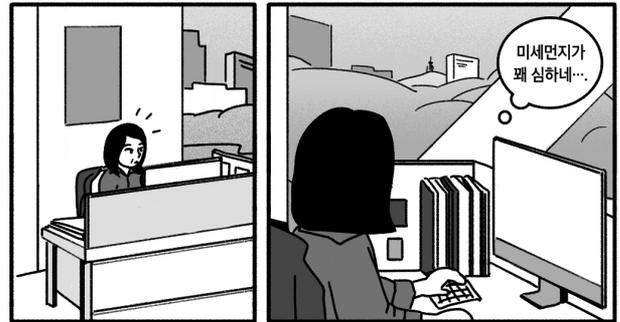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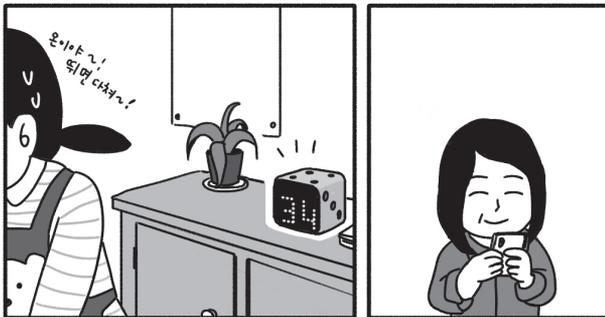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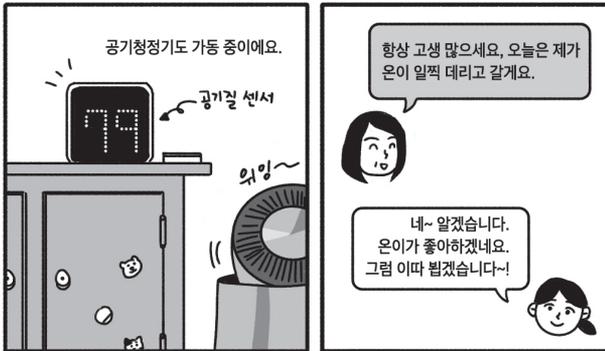
(6) 미세먼지 마스크 — 부록

미세먼지는 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각종 호흡기질환을 비롯해서 다양한 질병으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죠. 그래서 마스크의 착용은 필수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마스크는 미세먼지 방지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막아줄 수 있는 전용 마스크가 필요하죠. 미세먼지 마스크는 미세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틈을 줄이기 위해 코 부분을 눌러주면 안에 들어있는 얇은 철이 코에 딱 맞게 형태를 잡아주는 디자인이에요. 필터 교체형 마스크는 마스크에 소형 정화 필터를 적용해서 미세먼지를 걸러주기도 합니다.



(7) 공기질 감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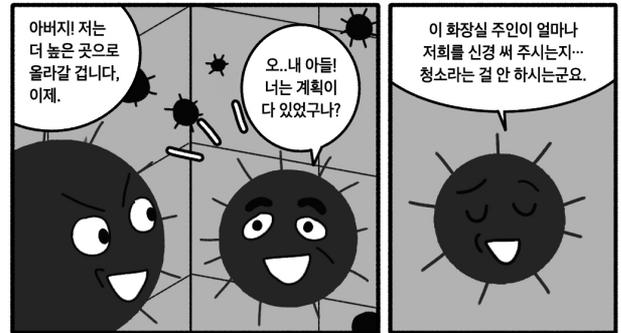


(7) 공기질 감지기 - 부록

실내 공기질을 감지해서 미세먼지 농도의 측정값을 숫자로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더불어 측정값이 축적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해 주사위 컨셉으로 외관을 설계하고, 음성 출력을 통해 측정값을 알려주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일반 가정집의 실내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효과적입니다.



(8) 곰팡이 제거 조명





[곰팡이 제거 조명]

곰팡이 제로 카운트'는 자외선 살균 전등을 이용해서 곰팡이 번식을 막아줘요.

일단, 곰팡이를 제거한 후에 그곳에 '곰팡이 제거 조명' 전등을 켜면 자외선으로 인해 공기 중에 있는 곰팡이 균이 더는 번식하지 않도록 해주죠.

여긴 안 되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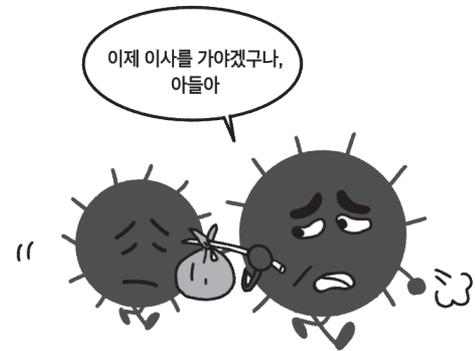
곰팡이를 제거함으로써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8) 곰팡이 제거 조명—부록

곰팡이는 가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세균입니다. ‘곰팡이방지 조명’은 곰팡이 제거에 효과적인 자외선 살균등을 적용한 장치예요. 곰팡이가 많이 피는 벽 부분을 바라보고 살균 등을 켜서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면, 곰팡이 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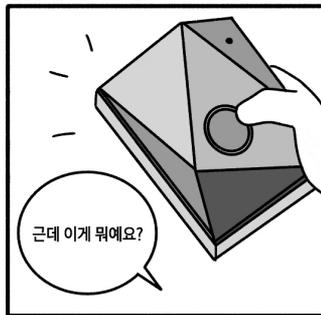
(8) 곰팡이 제거 조명 — 부록

‘곰팡이 방지 조명’의 자외선은 살균 성능이 있는 405nm 파장의 빛이 곰팡이 생성을 막아줍니다. 405nm 파장은 안전한 파장이지만, 그래도 직접 노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곰팡이와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50cm의 거리라면 하루 10시간 작동이 필요합니다. 외출시 사용을 권장 합니다.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센서 작동으로 사람이 가까이 가면 조명이 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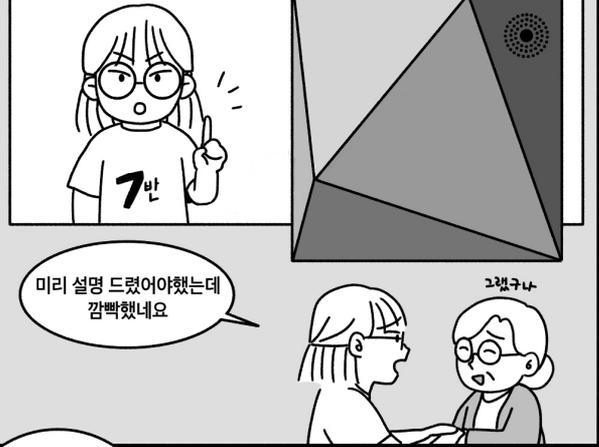
(9) 비상 연락 장치





[비상 연락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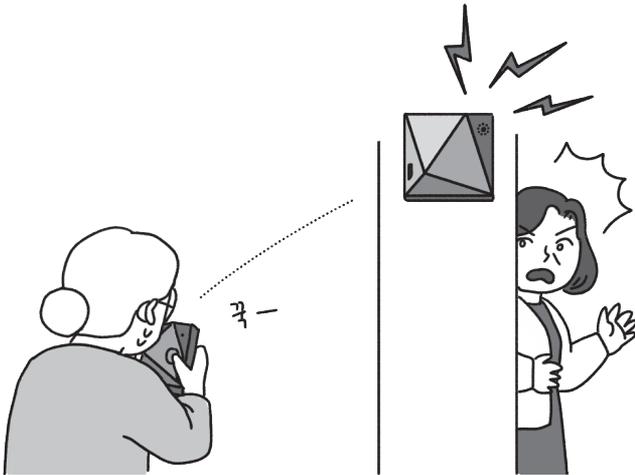
할머니, 그 장치는 사고가 생겼을 때,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누르면 안되고요. 꼭 비상시에만 눌러야 해요. 여성과 노인의 안전사고를 위해 만들어진 장치라서 제가 어제 구매해 놨거든요.



그쵸!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혼자 있을 경우 빠르게 대응이 필요할 때, 이웃의 도움을 구하는 장치라서 이웃 간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9) 비상 연락 장치 — 부록

혼자 있을 때 위험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여성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빠른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상연락장치'는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벨을 누르면 이웃에게 알릴 수 있는 장치예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RF 방식의 연결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료나 서비스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경찰이나 외부의 도움이 닿기 전에 가까운 이웃에게 위험을 즉각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고표지판이 제공되기 때문에 치한이나 스토크 범죄 등의 사전방지 역할에 효율적입니다.



(9) 비상 연락 장치 — 부록

'비상연락장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웃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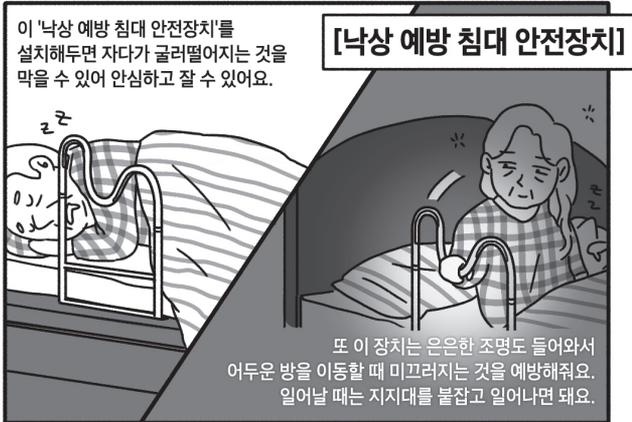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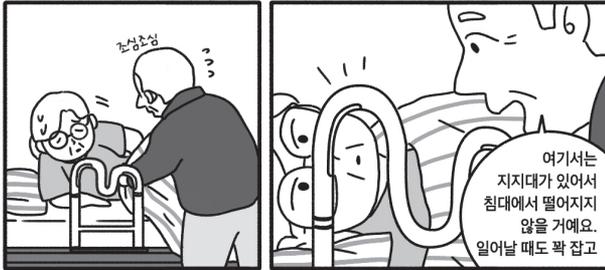
**③ 노인을 위한
안전은 있다 :
노인 안전장치**

- (1) 낙상예방 침대 안전 장치,
노인 목욕 의자**
- (2) 화장실 낙상예방 안전지지대**
- (3) 높이조절 세면대**
- (4) 안전지팡이**
- (5) 안전 체크장치**

(1) 낙상예방 침대 안전장치, 노인 목욕 의자



(1) 낙상예방 침대 안전장치 — 부록



어르신들은 몸에 힘이 풀리거나, 미끄러져 낙상사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상예방 침대 안전지지대'는 그런 점을 보완하고, 수면 중에 몸을 뒤척이다가 침대 아래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예방해주는 장치예요. 손잡이가 인체구조학적 설계를 통한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잡고 일어날 수 있죠. 지지대 하나만으로도 편안하게 일어나고 낙상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조명도 달려있어요.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는 침대에서만뿐만 아니라, 물기가 있는 욕실에서도 자주 발생해요. 특히 목욕 중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죠. 그래서 편하게 앉아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의자가 필수예요. 벽에 붙여놓고 접이식으로 사용하는 목욕의자는 공간 활용도 높이고 어르신들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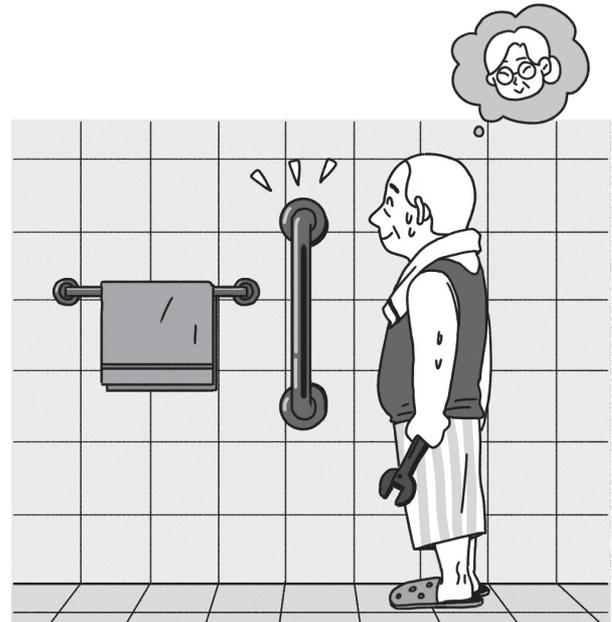
(2) 화장실 낙상예방 안전지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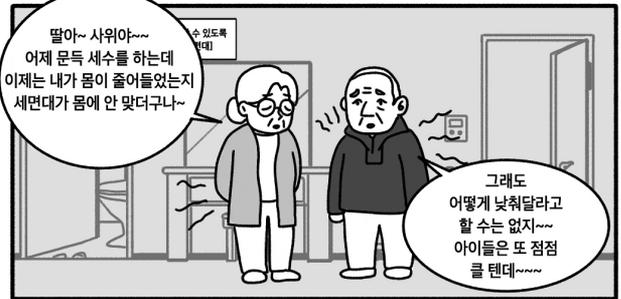


(2) 화장실 낙상예방 안전지지대 — 부록

안전지지대는 눈에 잘 띄도록 벽, 바닥, 주변의 색과 대조해서 색을 선정해야 합니다. 화장실에 안전지지대를 설치할 때는 좌변기, 욕조, 세면대 등을 피해서 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설치해야 해요. 물에 젖어도 미끄럽거나 차갑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며, 손잡이의 두께는 지름이 32cm~38cm가 되도록 합니다.



(3) 높이조절 세면대



근데 혹시 너희
“인지건강 디자인”이라고
들어봤는지는 모르겠다~~~

요즘에 말이다~?
인지건강 디자인을 적용해서
높이 조절이 되는 세면대가 나왔더라.
버튼으로 높이 조절하거나 벨브를 돌려서
높낮이를 조절하는 방식이 있다던데~

하이고~
이러면 거울 보면서
세수할 수 있겠구나~
흥흥흥

글쎄 이게
무이자 6개월 카드 할인도
된다더라~

사은품으로
넵비 세트도 준다던데~

어이구 부담 주지 마요~
우리는 괜찮단다. 하하하

장..장모님 장언어를 쓰시는
화장실에 높이 조절 세면대
놔드려야겠어요....

(3) 높이조절 세면대 — 부록

어르신들은 성인과의 신장 차이로 인해서 요즘 디자인된 부엌 작업대를 사용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인지건강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어르신을 위한 부엌작업대는 바닥에서 80cm~85c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휠체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닥에서 75cm~80cm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상하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대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좌식 싱크대도 권장하고 있어요.



(4) 안전 지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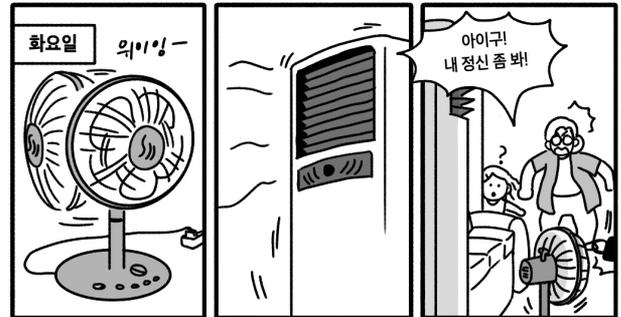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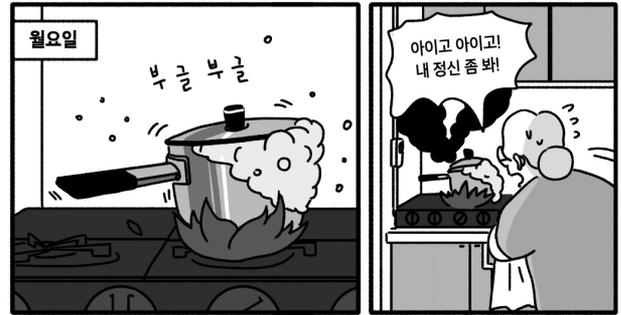


(4) 안전 지팡이 — 부록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집 안에서 안전지지대를 사용해서 걸으시거나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집안에서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을 최대한 제거해야 하고 보행에 도움이 되는 시설은 가까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주거약자용 주택, 공용 공간 설계기준'에 의하면 집에서 휠체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5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해요.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고 문지방과 같은 단차를 없애야 합니다.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나 휠체어를 오르고 내리는 곳에는 안전지지대를 벽면으로부터 5cm 떨어뜨려서 75cm~85cm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좋아요.



(5) 안전 체크 장치



(5) 안전 체크장치 — 부록

[안전 체크장치]

‘안전 체크장치’는 외출하기 전에 잊은 것이 없는지 점검하는 장치예요.



이렇게 하나씩 내가 점검해야 하는 것을 설정할 수 있어요. 할멈은 선풍기랑 가스불을 자주 깜빡하니까 하나는 거실, 하나는 가스불을 켜 붙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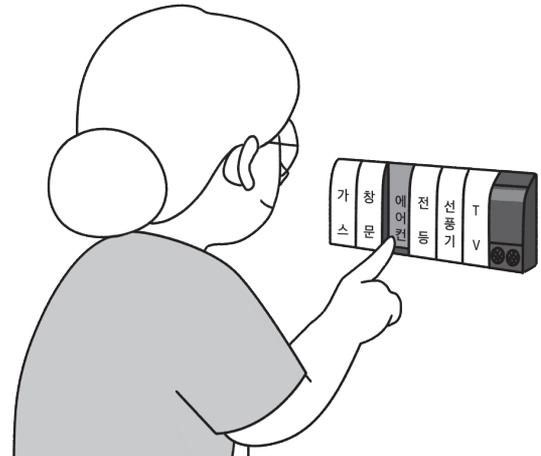


우리 같은 노인들이
사용하게 편하도록
버튼 하나로 한눈에 보기 좋게
점검할 수 있는 거죠.

나가기 전에 아래에 있는 스위치를
하나씩 눌러서 가스불은 켜는지,
전기 콘센트는 뽑았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누르면 색이 바뀌는 게 보이죠?



‘안전 체크장치’는 자주 깜빡깜빡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 체크 장치예요. 외출하기 전에, 안전을 위해 잊은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능이 있는 장치죠. 현관에 위치한 ‘안전 체크장치’는 평소 자주 잊어버리는 가스밸브나 전기 콘센트 같은 기기를 점검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치예요. 자주 잊어버리는 기기의 이름이 쓰여 있는 모듈 스위치를 눌러서 외출 전에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인체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사람의 접근을 감지합니다. 감지거리 내에 있을 시 적색 불이 들어오고, 점검 확인이 된 것은 스위를 눌러 녹색 불로 변환이 되고, 모든 점검이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소등 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II. 안전한 세상

- ① **안전으로 가는 길 :**
교통 및 이동 안전장치
- ② **일상의 안전 :**
치안, 재난 안전장치

**① 안전으로
가는 길 :
교통 및 이동
안전장치**

- (1) 계단 논슬립 발판
- (2) 자전거 방향표시등,
자전거 헬멧,
자전거 야간 신호등
- (3) 쉽게 설치하는
스노우체인
- (4) 자동차 안전삼각대
- (5) 초보운전자를 위한 차선표시기
- (6) 카시트
- (7) 휴대폰 사용자를 위한
바닥 주의 사인

(1) 계단 논슬립 발판





[계단 논슬립 발판]

계단 논슬립 발판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것을 예방하는 보호장치입니다. 급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계단 논슬립 발판은 어두운 공간에서 발의 감각으로 계단 끝을 알 수 있게 해요. 그래서 헛딛는 것을 막아주죠. 야광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도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눈으로도 쉽게 계단 끝을 볼 수 있습니다.

(1) 계단 논슬립 발판 — 부록

미끄러져서 발생하는 사고는 계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해요. 특히 물기가 많은 욕실에서는 더 자주 발생하고 있죠. 욕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위험하지만 어린이나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욕실은 구조상 다양한 제품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기 때문에, 넘어서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욕실에서 넘어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용 소재와 디자인이 적용돼 있는 욕실 신발이 출시되고 있어요. 또 물이 빠지는 구조를 사용한 욕실 미끄러짐 방지 매트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일에 붙이는 미끄럼 방지 패드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개발되고 있어요.



(2) 자전거 방향 표시등, 자전거 헬멧, 자전거 야간 신호등



[자전거 헬멧]

자전거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사고가 큰 부상을 가져오는 이유는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이죠.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보호 장비인 헬멧조차, 답답하다거나, 헤어스타일이 망가진다는 등의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편하고 간편한 헬멧들이 디자인되고 있어요.



경량 소재나, 종이를 사용하는 점이 특이하네요!
스웨덴에서 디자인 한 이 헬멧은 평소에는 목에 두르고 있다가 충격이 오면 에어백처럼 부풀어서 머리를 보호해준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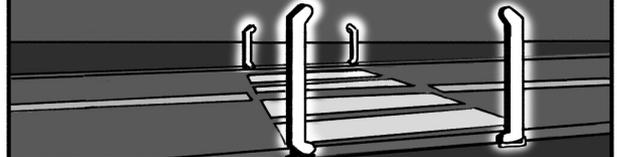
[자전거 야간 신호등]

자동차처럼 자전거도 신호등이 있으면 얼마나 안전할까요?



최근에는 자전거 인구가 많아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많아지면서 자전거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용 자전거 신호등은, 단순히 운행 신호를 알려주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야간에 먼 거리에서 자전거가 오는 것을 보행자에게 알려줘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도로와 접하는 횡단보도를 밝게 비춰 라이더가 보행자를 확인하기 쉽게 해줍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자전거 운행, 장비를 갖추고 조심하는 게 최선이예요

(3) 쉽게 설치하는 스노우체인



(3) 쉽게 설치하는 스노우체인 — 부록

눈이 내린 도로는 일반 도로에 비해서 제동거리가 3배 이상 증가해요. 거리에 길이 얼었다면 5배에서 최대 8배까지도 증가하죠. 그래서 눈이 오는 날에는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스노우체인’이 필수랍니다. 스노우체인은 소재에 따라 사슬형, 우레탄형, 원터치형, 직물형으로 나뉘어요. 과거에는 스노우체인을 설치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원터치 형이 개발돼서 쉽고 빠르게 설치가 가능해요. 원터치형 중에서도 ‘스파이더 형’은 휠에 어댑터를 장착해줬다가 눈이 올 때 체인을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 편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반짝 정보] 아빠가 전달하는 정보 “쉽게 설치하는 스노우체인”

스노우 체인 설치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스노우 체인이 있습니다.

‘스파이더 형’과 같은 ‘원터치 형’은 미리 어댑터만 설치 해놓는다면 어댑터에 끼워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특히 타이어의 반만 걸쳐도 충분히 기능을 다 합니다. 얼마나 쉽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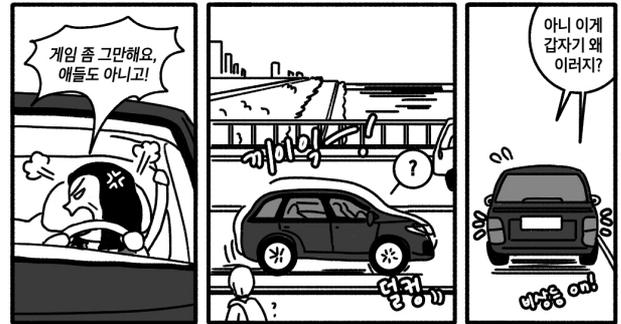
60Km 속도로 주행을 해야 차와 도로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

설치 후에는 짧은 거리라도 시험 주행을 꼭 해보아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아빠, 빨리 썰매타고 싶단 말이야~!! 빨리~ 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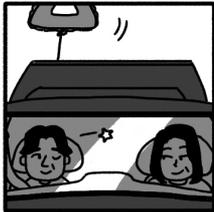
어휴 그래~ 금방 갑니다요~!

(4) 자동차 안전 삼각대





우선 트렁크를 열어봐요.



어머, 이게 뭐예요?
언제 설치한 거야?



자동차 게임하다 보니까 사고 나면 트렁크에서 비상등 풍선이 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실제로도 있더라고~ 그래서 바로 샀지. 안전이 최우선이니깐요.



게임만 하는 줄 알았는데 뭐 도움이 되긴 하네~



이렇게 된 거 오랜만에 걸으면서 데이트 할시다~

[자동차 안전삼각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 가지고 다니던 삼각대를 일정한 거리에 설치해야 해요. 왜냐하면 뒤의 차가 상황을 모르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오다가 서 있는 차와 부딪쳐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삼각대를 설치하려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하겠죠?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차 밖으로 나갔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각대 모양의 풍선을 트렁크에 설치하는 장치가 개발됐어요. 사고가 났을 때, 트렁크를 열기만 하면 자동으로 풍선이 올라와서 사고 상황을 뒤의 차에게 알려준답니다. 밤에도 잘 보이도록 LED 조명 기능도 함께 내장돼 있어요.

(5) 초보운전자를 위한 차선 표시기





(6) 카시트



카시트의 올바른 사용법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사망률이 7배에 달한다는 통계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카시트를 사용할 때는 꼭 뒷좌석에 설치해주시고, 아이의 몸무게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카시트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카시트는 반드시 뒷자리에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바로 사용해야 해요.
미숙아의 경우는 카시트에 눕혀주세요.



셋째, 고정이 잘됐는지 항상 확인!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



넷째, 짧은 주행을 통해
아이들이 카시트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카시트로 놀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과의 즐거운 여행,
사랑하는 우리 아이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6) 카시트 — 부록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의 카시트 장착률이 95%인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장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영유아용 카시트 대신 성인용 안전벨트를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에서 시작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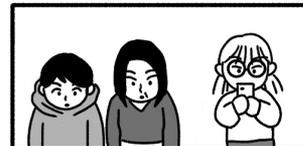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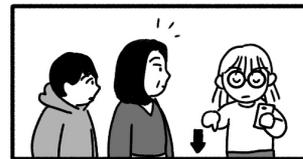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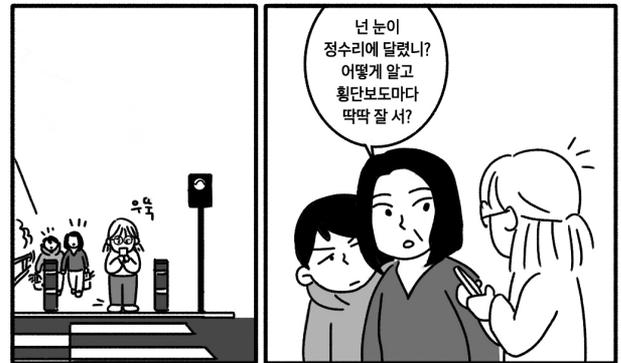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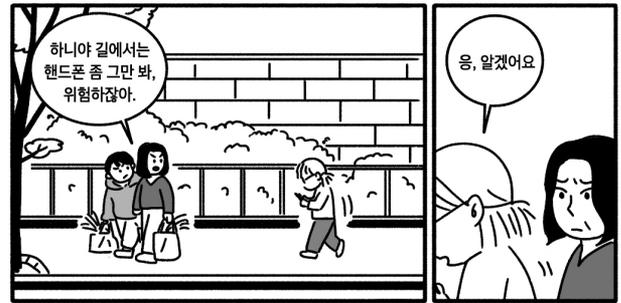
X



O



(7) 휴대폰 사용자를 위한 바닥 주의 사인





[휴대폰 사용자를 위한 바닥 주의사인]

휴대폰을 사용하며 길을 걸을 때, 도로 위에 있는 횡단보도나 보행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알려주는 사인물을 의미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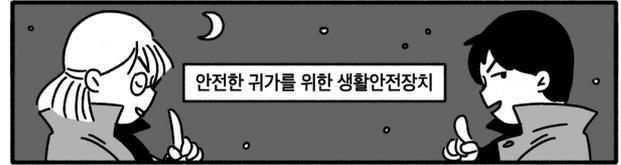


빛이 반사되는 재질이나 야광재질을 써서 정보가 잘 보이게 하죠. 최근에는 LED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② 일상의 안전 : 치안, 재난 안전장치

- (1) 여성 호신경보기,
여성 안전귀가 서비스앱,
호신용 휴대폰 전기충격기
- (2) 액션캠 내장형 손전등
- (3) 지진대비 방석헬멧
- (4) 페이퍼캐스트
- (5) 라이프클락
- (6) 사용하기 쉬운 심장 제세동기

(1) 여성 아동 호신경보기, 여성 안전귀가 서비스앱, 호신용 휴대폰 전기충격기



[호신용 경보기]

호신용 경보기는 소리를 내는 방식의 경보 장치입니다.

입으로 부는 호루라기와



당기는 방식의 경보기 타입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시 소리를 내어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거나, 주변에 알릴 수 있습니다.



꺼내기 쉬운곳에 보관 하거나
손에 쥐고 다니기를 추천 합니다.



방전이 되지 않게 평소
배터리를 자주 확인 해주세요!

[여성 안전귀가서비스앱]

지자체 별로 다양한 안전귀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안전귀가 앱은 지역 관제 센터와 연결되어 있어 긴급 신고 요청을 하면 경찰이 출동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OO지역
위급상황 발생!
출동 바람!

또 귀가 모니터링 서비스로 도착지를 설정!



오는 중...



실시간 위치를 관제센터와 보호자에게 전달합니다



무엇보다 지역마다 안전지킴이 스카우트 대원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요청하면 귀가길 동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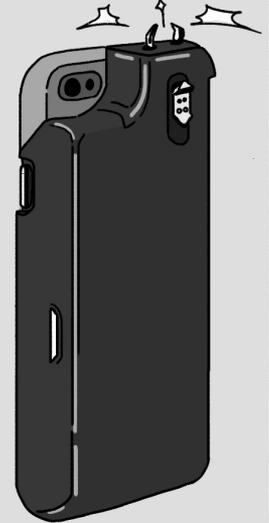
앱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꼭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양한 예방 수단이 있어도, 막상 위험이 닥쳤을 때는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효과적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호신 용품도 알아볼까요?

[호신용 휴대용 전기충격기]

이런 장치들이 가볍고 휴대하기 좋다면 갖고 다니기 훨씬 편하겠죠? 휴대폰 케이스에 전기충격기가 들어 있는 제품도 출시되었습니다.



보조 배터리 기능도 함께 있다고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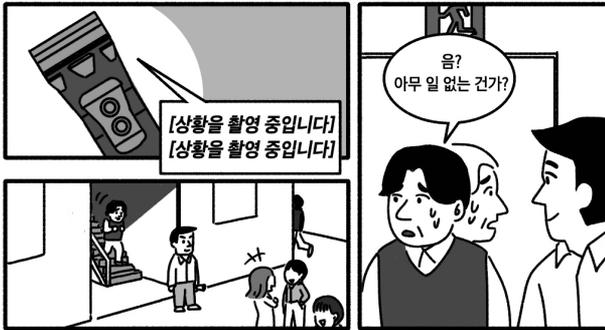


작지만 강력한 호신 용품, 무엇보다 평소에도 항상 조심 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2) 액션캠 내장형 손전등





화재는 2차사고로 정전을 발생시켜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난 유도등과 비상등이 있더라도 올바른 피난 방법과 경로를 찾기 어려워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액션캠 내장형 손전등]

이 "액션캠 내장형 손전등"은 손전등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전달할 수 있고 외부에서 영상을 보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소방 공무원들은 비슷한 장비로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션캠 내장형 손전등"은 화재, 사건 발생 대응 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를 이용해 상황실과의 연결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음성기능을 추가하여 위험 상황에서 위치를 찾기 쉽게 하거나, 채증목적의 사용 시 초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안내 음성기능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액션 내장형 손전등"은 사고 현장의 영상을 사후 분석하여 원인을 찾아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액션캠 내장형 손전등 — 부록

‘액션캠 내장형 손전등’은 화재, 사건 발생 대응 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를 이용해 상황실과의 연결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튼튼한 재질의 외형으로 되어 있으며,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이를 모바일 기기로 영상 송출을 할 수 있습니다.



(2) 액션캠 내장형 손전등 — 부록

손전등 손잡이의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현장 상황 녹화를 시작하는 카메라 전원이 켜집니다. 녹색버튼을 누르면 손전등을 켤 수 있습니다. 또한 ‘액션 내장형 손전등’은 사고 현장의 영상을 사후 분석하여 원인을 찾아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소방 공무원들은 비슷한 장비로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지진대비 방석 헬멧



지진 시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헬멧을 쓴다면
안전이 두 배가 되겠지만, 평소엔 헬멧을
구비하고 있기는 어려우니 지진이 일어났을 때
깔고 앉아 있던 자신의 방석을 헬멧처럼 쓰면 됩니다.



방석의 폭신함이 머리를 감싸주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야, 이거 쓰니까
게임에 나오는
빌런들 같아



ㅋㅋㅋㅋ
그럼 한 대 맞아볼래?
아픈지 안 아픈지?

딱중☆ 약!



오잉



그래도 뭔가
안 아프긴 하다.
이거 진짜 지진 났을 때
효과 있겠는데?



중학교 새단장
거기 떠들고 있는 누리! 정수!
나와서 시연하고 싶은 거지?
앞으로 나와서 해보자 그럼~



아오...네...

(3) 지진대비 방석 헬멧 —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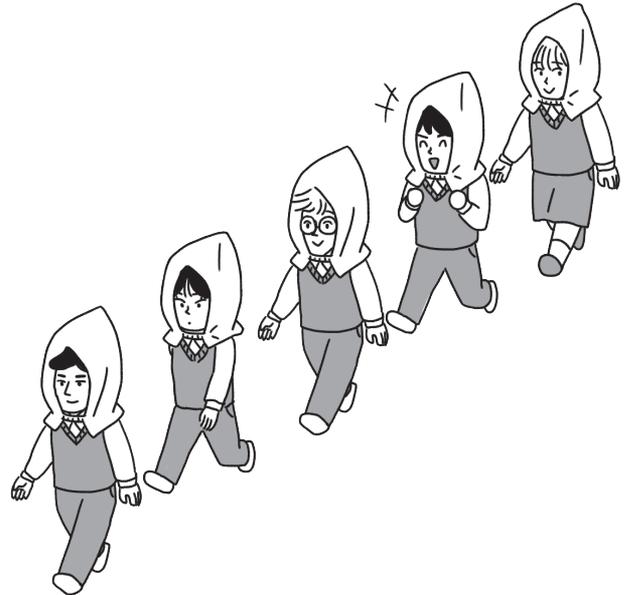
▶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행동 요령

● 학교에 있을 경우는?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다리를 꼭 잡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질서를 지키며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 백화점, 마트에 있을 경우는?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합니다.



(3) 지진대비 방식 헬멧 — 부록

●극장, 경기장 등에 있을 경우는?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자리에 있다가,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전철을 타고 있을 경우는?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는?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들으면서 키를 꽂아두고 대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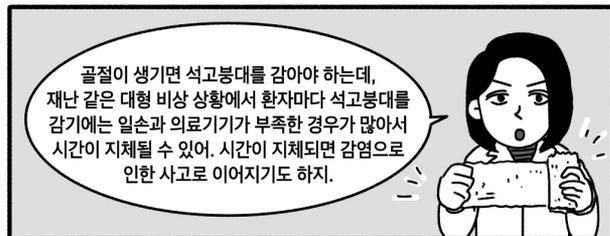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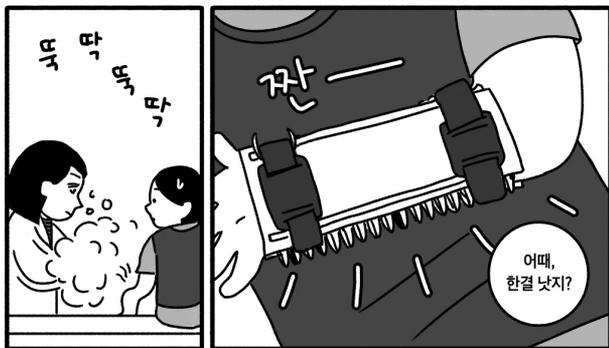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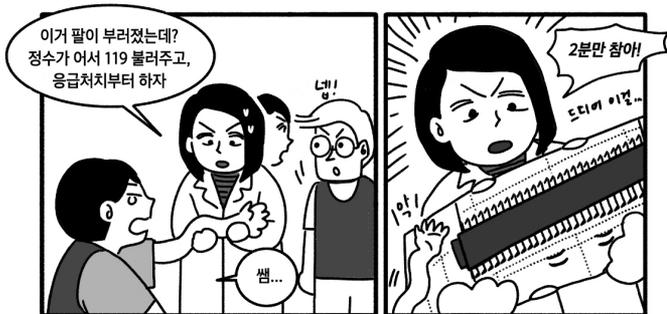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는?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해안에서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3) 지진대비 방식 헬멧 — 부록

(4) 페이퍼 캐스트





[페이퍼 캐스트]

그래서 고안된 것이 '페이퍼 캐스트'란다. 이 제품은 종이를 격자구조로 만들면 강해진다는 간단한 원리를 이용하고 있지. 접힌 상태의 종이 캐스트를 조립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응급처치 방안으로 주로 사용돼.



(4) 페이퍼캐스트 — 부록

재난 상황에서는 많은 부상자가 발생해요. 재난은 공황을 불러오기 때문에 혼란 중에서 넘어지거나 부딪쳐서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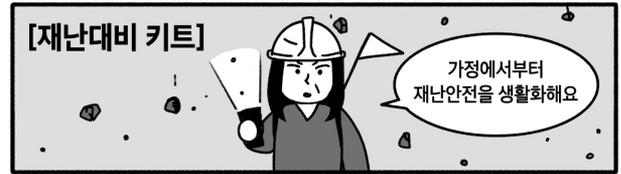


(4) 페이퍼캐스트 — 부록

‘페이퍼 캐스트’는 뼈가 부러진 부분에 부목처럼 사용하답니다.
휴대성도 좋아서 등산 같은 레저를 할 때도 휴대하면 좋아요.



(5) 라이프클락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과 같은 재난에서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해요.
이제 가정에서의 재난대비 안전장치는 필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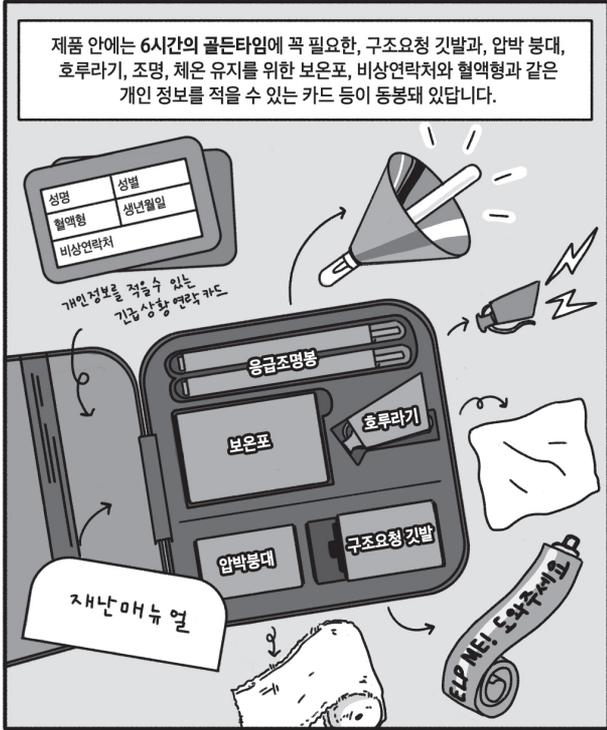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벗어났더라도 부상이 있을 때는
'재난 키트'의 도움이 있으면 생존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에 '재난대비 키트'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있더라도 바로 찾기 어렵게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라이프 클락' 재난대비 키트는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난대비 키트입니다. 라이프 클락은 재난대비 키트와 벽걸이 시계를
결합한 디자인으로, 평소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고 있을 수 있어요.

(5) 라이프클락 — 부록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물자를 각 가정별로 비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30일분의 식량과 식수, 취사도구와 연료, 침구와 의류, 의약품과 의약외품, 그 외 생필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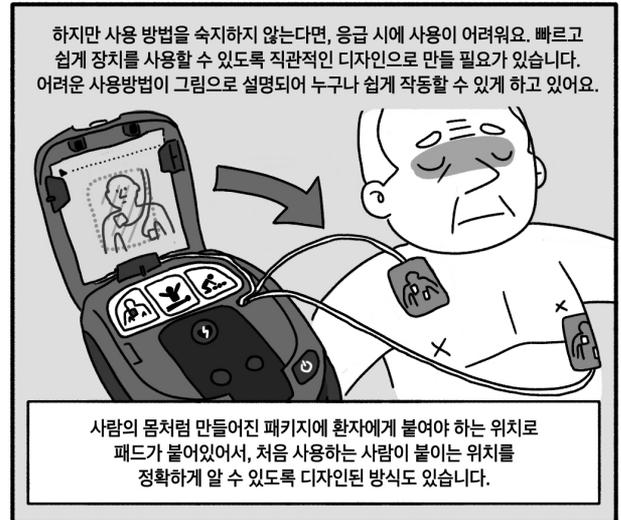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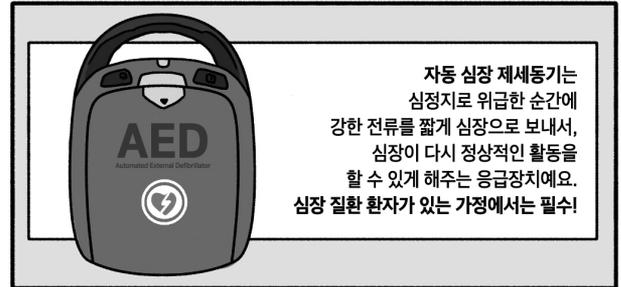
- ▶ 취사, 식량, 생활용품
- 식량 : 조리와 보관이 간편한 쌀, 라면, 밀가루, 통조림 등 (30일분)
- 취사도구 : 식기(코펠), 휴대용 가스레인지
- 취사용 연료 : 부탄가스(16개 이상)
- 침구 및 의류 : 담요, 내의 등
- 라디오(배터리 포함), 배낭,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 등

- ▶ 가정용 비상약품
- 의약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등
- 의약외품 : 핀셋, 가위,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등

- ▶ 화생방전 대비물품
- 방독면 또는 수건, 마스크
- 보호의 또는 비닐 옷, 우의



(6) 사용하기 쉬운 심장 제세동기



심장 제세동기 사용법은 종류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원칙은 같아요.

1. 전원 켜기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서 전원을 켜고 안내에 따릅니다.

2. 패드 부착



환자의 상의를 벗긴 후, 정확한 위치에 패드를 연결한다.

3. 심장 리듬 분석



장치가 환자와 연결되면 심전도 리듬을 분석하기 위해 "접촉 금지"라는 음성이나 "모두 물러나세요"라고 외치며 환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4. 충전 및 버튼 누르기



분석을 마친 장치가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하며, "충전 완료"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다시 "모두 물러나세요"라고 외치며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른다.

5. 심폐소생술



이후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하고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확인한다. 구급 대원이 올 때까지 위 상황을 반복한다.

심장은 생명입니다. 신속한 대처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요.



(6) 사용하기 쉬운 심장 제세동기 — 부록

갑작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9에 신고를 하고 주변에 있는 심장 제세동기를 찾아 시행해야겠지만 심장 제세동기가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래의 일반인을 위한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해야 해요.

(1) 반응의 확인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환자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아야 해요.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2) 119 신고

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즉시 큰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변에 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사용해야 합니다.

(3) 응급의료전화상담원 지시에 의한 가슴압박 소생술

심폐소생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를 접수한 응급의료전화 상담원은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전환 시킨 후에 신고자가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호흡확인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사용하기 쉬운 심장 제세동기 — 부록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 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일반인은 비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급 의료 전화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5) 가슴압박 시행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에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댑니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해야 해요. 가슴 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소아 4~5cm)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 '서른'하고 세어가면서 규칙적으로 시행하며, 환자가 회복되거나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해야 해요.



(6) 사용하기 쉬운 심장 제세동기 — 부록

(6) 회복자세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숨길)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그 후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관찰해야 합니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진다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신속히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해야 해요.



안전 정보

**안전정보가 필요하세요?
(2020년도 기준)**

① 전화번호

긴급 신호	긴급시	119 / 112	
통합 서비스	비긴급 안전 관련 통합 상담	110	
	질병관리본부	1339	
상세내용	해양사건, 사고	112	긴급시
	가스	1544—4500	119 / 112
	수도	121	
	실종, 범죄상담	182	
	범죄, 경찰	1301	
	학교폭력	117	
	밀수, 관세	125	
	환경오염	129	
	불량식품	1399	비긴급시
	군 위기, 범죄	1303	110
	재난	1588—3650	
	전기사고	123	
	청소년 상담	1388	
	전기안전	1588—7500	
	자살	1588—0199	
	노인학대	1577—1389	
	여성폭력	1366	
사이버테러	118		

② 어플리케이션

No.	이름	제공처	내용
1.	생활안전지도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 연구원 제공	각 지역의 안전 정보를 지도 서비스로 제공
2.	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생활속 안전 위험요소 신고 서비스 지원
3.	안전디딤돌	행정안전부	맞춤형 재난안전 서비스 제공, 국민행동요령 제공
4.	전기안전 길라잡이	한국전기안전 공사	전기안전 지침, 전기 관련 법령 정보 제공
5.	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정보, 수입식품 정보, 전문 정보 제공
6.	안전해(海)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사고 예방 정보, 피서기 안전 정보 제공
7.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정보 제공
8.	랜디랑	한국국토정보 공사 제공	안전정보 어플리케이션
9.	안전드림	경찰청 경찰지연센터	범죄 피해신고 접수 및 신속 구조활동 지원

② 어플리케이션

No.	이름	제공처	내용
10.	위기탈출 안전보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보건자료 제공
11.	해외안전여행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정보 제공
12.	안전한 학교생활	교육부	유/초/중/고 학생들의 안전 교육 정보 제공
13.	서울안전	서울특별시	실시간 서울시 재난 속보 및 행동요령 제공
14.	서울시 안심이	서울특별시	스마트폰 위치정보, 안심귀가, 귀가 모니터링, 스카우트 서비스
15.	112 긴급신고 앱	경찰청	위급, 전화 불능시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112 신고 서비스

▶ 각 어플리케이션 마켓에 이름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③ 홈페이지

No.	이름	제공처	내용
1.	생활안전지도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 연구원 제공	각 지역의 안전 정보를 지도 서비스로 제공
▶ www.safemap.go.kr/main/smap.do			
2.	국민재난 안전포털	행정안전부	생애주기별 6대 안전 분야에 관한 안전교육 컨텐츠 및 통합 정보 제공
▶ www.safekorea.go.kr/idsiSFK/index_web.jsp			
3.	국민안전 교육포털	행정안전부	생애주기별 6대 안전 분야에 관한 안전교육 컨텐츠 및 통합 정보 제공
▶ kasem.safekorea.go.kr/ptl/fms/main.do			
4.	소방청국가 화재정보센터	소방청국가 화재정보센터	화재 정보 및 화재 관련 지식 공유, 화재 통계 및 예방정보 제공
▶ nfds.go.kr/index.jsf			
5.	119 안전신고센터	119 안전신고센터	대국민 재난정보의 통합제공을 위한 포털, 국민행동요령 제공
▶ u119.nema.go.kr/web/index.jsp			

③ 홈페이지

No.	이름	제공처	내용
6.	소방청 유튜브	소방청	재난 예방, 소방관련, 교육 동영상 콘텐츠 제공
▶ www.youtube.com/channel/UCbPBCZhgG_kX_1Wb0cdu5lw			
7.	제품안전 정보센터	산업안전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 관련 사고, 상해 정보 제공, 위해상품 신고 서비스
▶ www.safetykorea.kr			
8.	식품 안전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처	위해 식품정보 및 식품안전관련 이슈 및 콘텐츠 제공
▶ www.foodsafetykorea.go.kr/main.do			
9.	생활환경 안전정보 (초록누리)	환경부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 정보를 연계하여 One- Stop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
▶ ecolife.me.go.kr/ecolife/			

맞는 말

요즘 안전이 문제잖아요.
경찰도 세콤도 멀고 이웃이
가까이 있으니 이웃끼리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거죠.

생활안전장치 개발 사업은 이정성 장인과 차광수 장인이 2018년 시민참여예산에 제안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어요. 2020년에 접어들었으니 벌써 2년 전 이야기죠. 함께 제안했던 차광수 장인에게 어떻게 이런 사업을 구상하셨는지 여쭙니, 위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뜻밖에 '이웃'을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웃이야말로 가장 튼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이죠. 뜻밖인 것은 기술 장인들이 기술에 밀줄을 굶지 않으셨다는 거죠.

돌아보면 생활안전장치 개발 사업은 아이디어 제안부터 진행된 사업의 내용도, 실행 과정 자체도 '이웃'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한 아이템 하나하나가 모두 이웃을 살뜰히 살피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에 완성된 시제품들을 보신다면 반지하 거주민이나 홀로 계신 노인들과 불안한 여성들에 대한 공감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업을 진행한 과정도 어찌 보면 '이웃 만들기'의 과정이었어요.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 일곱 사람의 개발자가 붙고 제작과정에 수십 명의 청계천 을지로의 기술인들이 공정을 나눠서 참여하셨으니까요. 뿐인가요? 안전이란 키워드로 만난 여러 자문자도 계시죠. 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분과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공간경험디자인학과 최정수 교수님과 학생들도 우리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인연을 단단히 엮어준 우리 시민참여예산팀원들을 만난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런 이웃들을 만난 것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합니다.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로 펼치는 삶과 문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걸 우리 기술 장인들은 이미 체득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 시제품들을 모은 자리에 '생활안전장치도감'이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기술력의 단단한 씨앗을 감싼 생활력의 풍성한 과육을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하신 세운의 이웃들, 가족께 감사드립니다.

생활 안전 장치 도감

주관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이재훈

주최

다시세운시민협의회
송달석, 최대혁

저자

한국안전디자인협회
최정수

기획

이솔잎, 박민선
박지인, 방순영

일러스트

임나운

디자인

CCCG 참참참그래픽

제안자

차광수, 이정성

생활안전장치제작지원 개발사

만드로

씨드그라운드

랩스칼렛프라블럼앤퀘스천

에이브이컴

플랜비

태상전자

세운공장 협동조합